

강진 초록민음 쇼핑몰 ‘e커머스 직영’ 승부수 통했다

연 6억원 절감·매출 2천800% ↑
예산 효율화·지역경제 활성화
고령농 판로 개척·24명 창업도
지방재정 대상 우수기관 선정

강진군이 고물가·고령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추진한 ‘e커머스 직영 전환’이 예산 효율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지방 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월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을 신설하고 지역 대표 유통 브랜드인 ‘초록민음 쇼핑몰’의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그동안 지역 농특산물 판매는 오프라인

중심이나 위탁 운영 방식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물류비와 홍보비 등 막대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실제 매출 상승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군은 공무원들이 직접 온라인몰을 운영·관리하는 ‘직영 체제’를 도입해 승부수를 던졌다.

이러한 체질 개선은 즉각적인 예산 절감 효과로 나타났다. 군은 쇼핑몰 상세페이지 자체 제작(3억3천200만원), SNS 직접 운영(4천만원), 자체 기획전 추진(1억2천만원) 등을 통해 중간 유통비용을 없애며 연간 총 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해당 비용은 판매 수수료 인하 등 생산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재투자됐다.

매출 증대와 판로 확장 효과는 더욱 극적이다.

군은 온라인 입점이 낮은 고령 농가를 위

해 상세페이지 제작부터 입점 절차까지 전담 인력을 투입해 원스톱으로 지원했다.

또 옥션·G마켓 등 대형 오픈마켓에 ‘강진 브랜드 홍보관’을 개설하고 폐쇄몰 입점과 대도시 팝업스토어 운영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그 결과 강진군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액은 전년 대비 무려 2천800% 급증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초록민음’ 쇼핑몰 회원 수는 950명에서 2만4천102명으로, 입점 업체는 89개에서 144개로 늘었으며 상품 수 역시 231개에서 604개로 대폭 증가해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단순한 판매 지원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관광 연계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체계적인 e커머스 교육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과 고령층 등 24명이 ‘전자상거래수출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신규 창업에 성

공했다. 아울러 ‘강진 반값여행’ 패이백 포인트와 지역사랑상품권(Chak 20)을 온라인몰 결제와 연동시켜 관광객의 소비가 농특산물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다.

군은 이러한 혁신적인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예산 절감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디지털 혁신으로 극복하고 재정 건전성까지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의 실정을 정확히 진단하고 군이 주도적으로 나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이끈 것이 성과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판매 전략과 브랜드 고도화를 통해 강진군을



전국 제일의 부자 농촌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함평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대동면 ‘나비랑 딸기랑’ 농장에서 전남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전남 딸기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 연시회’를 개최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딸기산업 ‘첨단 기술’ 모델 육성

에어포그로 ‘메리퀸’ 병해 예방 탁월
수확 체험 등 6차 산업 표본 제시도

함평군이 기후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딸기 생산을 위해 첨단 재배 기술 도입과 6차 산업 모델 발굴에 나섰다.

25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대동면 ‘나비랑 딸기랑’ 농장에서 전남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전남 딸기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시회는 이상 기후와 병해충 증가, 노

동력 부족 등 농촌이 직면한 삼중고를 해결하고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하우스 내부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춰, 지역 주력 품종인 ‘메리퀸’의 고질적 문제였던 흰가루병 발생률을 현저히 낮추는 ‘에어포그 시스템(Air Fog System)’이 참석 농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단순 생산을 넘어선 ‘체험형 경영 모델’도 제시됐다. 군은 딸기 수확 체험 교육장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부족한 수확 일손을 덜고 관광 수익까지 창출하는 농업·관광 융합(6차 산업) 모

델의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연시회에 참석한 한 농가는 “에어포그 시스템 덕분에 병해충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며 “이번에 배운 신기술과 경영 기법을 현장에 접목해 미래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연시회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실용적인 해법을 찾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신안군 국제 환경상 ‘금상 3관왕’ 달성

英 그린애플어워즈서 수상
작년 리브컴·그린월드 이어
‘신재생 이익 공유제’ 호평

신안군이 올해 영국에서 열린 국제 환경상 시상식에서 금상을 거머쥐며 ‘3관왕’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25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2025 그린애플어워즈(The Green Apple Awards)’ 시상식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그린애플어워즈’는 영국의 비영리 환경단체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The Green Organisation)’이 주관하는 세계적인 환경상으로, 각국의 우수 환경 정책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군은 이번 심사에서 핵심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는 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제도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글로벌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인한 ‘리브컴어워즈’와 ‘환경 분야의 오스카’로 불리는 ‘그린월드어워즈’ 금상에 이은 세 번째 쾌거로 신안군의 정책이 세계적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3관왕 달성은 주민과 함께하는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고도화해 글로벌 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내년 세계 180여개국이 참여하는 ‘에너지글로벌어워즈(Energy Globe Awards)’에도 도전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신안=양훈 기자



신안군은 최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2025 그린애플어워즈(The Green Apple Awards)’ 시상식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신안군 제공〉

영광군 “독감 환자 ↑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65세 이상·어린이 등 무료

영광군이 최근 독감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예방접종 참여와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25일 영광군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전남 지역 독감 의사환자 수는 1천명당 49.7명으로 불과 한 달 만에 5배 이상 폭증했다.

앞서 군은 지난 9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국 지정 병·의원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영광군에 주소를 둔 ▲55~64세 중장년층 ▲14~18세 청소년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요양시설 및 AI 가금류 농장 종사자 등은 백신 소진 시까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이 외 일반 희망자는 9천500원에 유료 접종이 가능하다.

영광군 보건소 관계자는 “독감 예방을 위해 외출 전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생활 속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서둘러 접종을 마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진도군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운동’ 전개

진도군은 “최근 진도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운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진도교육지원청과 진도경찰서가 함께 했으며,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참가자들은 등교하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전 홍보 전단을 배부하며, 등하굣길 어린이 보호 제도와 유괴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사진〉

진도군 관계자는 “아이들이 걱정 없이 학교 생활을 하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며 “앞으로도 예방 활동과 안전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예방 활동과 안전교육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진도=박세권 기자

해남 산정5일시장 ‘땅끝송지장’으로 새 출발

내년 재개장…장날 4·9일로 변경

12월11일까지 입점자 17명 모집

해남군이 송지면 ‘산정5일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 마무리에 맞춰 점포 및 노점 입점자를 공개 모집한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 시장 명칭을 ‘땅끝송지장’(조감도)으로 변경하고 장날 또한 기존 2·7일장에서 4·9일장으로 조정한다.

또한 내년 1월께 재개장을 앞두고 오는 12월11일까지 상설 점포 및 노점 입점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총 17개 점포로 ▲24㎡ 13개 ▲38.4㎡ 2개 ▲48㎡ 2개 등이며 모집 분야는 식품·잡화, 수산·건어물, 음식점, 의류 등이다. 접수는



송지면사무소 산업팀에서 받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전까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본인이 직접 점포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자로 제한되며,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단 현대화 사업 이전부터 영업해 온 기존 상인은 입점이 허용되나 재계약 시에는 불가하다.

입점자는 서류 심사와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하며, 최종 계약 기간은 2년이다.

/해남=박필용 기자